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수경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Su Kyoung Chu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정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대전과 충청남도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2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최종 16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 Windows program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인애착의 하위영역인 애착회피는 자아분화($r=-.240, p=.002$), 임상수행능력($r=-.237, p=.002$)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애착회피($r=-.237, p=.002$)와 자아분화($r=.248,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beta=.203, p=.008$), 애착회피($\beta=-.188, p=.001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4%($F=8.707,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수준을 파악하여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애착의 하위영역인 애착회피 정도를 낮추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adult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the third and fourth grade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a nursing university at Daejeon, Chungcheong province in two nursing universities at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Finally, 169 out of initial 20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effectivenes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Statistics 22 Windows program. Attachment avoidance in adult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differentiation ($r=-.240, p=.002$) and clinical competency ($r=-.237, p=.002$). Clinical compet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ttachment avoidance ($r=-.237, p=.002$) and self-differentiation ($r=.248, p=.001$).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self-differentiation and attachment avoidance ($F=8.707, p<.001$) predicts 8.4% in clinical competency.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self-differentiation ($\beta=.203, p=.008$), followed by attachment avoidance ($\beta=-.188, p=.0015$).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capable of increasing their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while decreasing their degree of attachment avoidance.

Keywords : Adult attachment, Adult attachment style,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본 논문은 우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 Kyoung Chung(Woosong Univ.)

Tel: +82-42-630-9293 email: skyoung1@wsu.ac.kr

Received November 12, 2018

Revised (1st December 20, 2018, 2nd December 31, 2018)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1. 서론

간호란 간호제공자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대학생활 동안 익숙하지 않은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건강요원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환자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1].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고객의 서비스 요구도가 변화됨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학생들은 수행에서 관찰위주로 실습하게 되었으며 실습내용에도 변화가 있어왔다[2][3]. 이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자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토대로 임상 상황을 고려한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다[4],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직접적인 간호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중재도 제공되어야 한다[5].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부모 외에 주위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정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시기이므로 성인애착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6].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친밀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7]. 영유아기에서 형성되는 양육자의 일방향적 반응이 주 영향인 애착과 다르게 성인기의 성인애착은 애착의 대상과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진다[8]. 애착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기는 하지만 성인애착으로 발전된 후에도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9].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환자와 치료적 관계형성을 시작하며 의료진들 간의 협력에 대해 배우게 된다. 성인애착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9,11]. 간호사로서 직업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애착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애착 정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아분화는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사이 및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

다[12].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관계 내에서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서적 연대를 이루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 [12][13].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고 비판적 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비롯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타 전공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14].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연구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자아분화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정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정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정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6일까지 대전·충청소재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외로 사용될 것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총 200부의 설문지중 18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응답이 있는 1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6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Cohen's G-power calculation Version 3.1.7에 의하면, 회귀분석 시 예측변수 최대 10개인 경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에서 검정력 0.80 [15]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집단의 표본수는 118명으로 계산되어 각 집단의 대상자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Brennan (2000)이 개발한 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를 Kim [16]이 변안한 친밀관계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차원별로 18문항씩 7점 척도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고 불안정한 애착정도를 나타내며 애착불안은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지나치게 몰두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애착회피는 친밀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17]. 개발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애착불안 .91, 애착회피 .94이었다. 변안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애착불안 Cronbach's α .89, 애착회피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91, 애착회피 .90이었다.

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이 및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이다 [10]. Bowen의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 DOSS)를 Je [18]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인식분화,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및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9]. Lee et al. [2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 [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까지이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 [20]이 개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Choi [21]의 연구에서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 Windows program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 24명(14.2%), 여학생 145명(85.8%)이 포함되었고 3학년 97명(57.4%), 4학년 72명(42.6%)이었다. 종교는 무교 93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5명(26.6%), 천주교 19명(11.2%), 불교 10명(5.9%) 순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68명(40%)로 제일 높았으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54명(32.0%), 주위의 권유 28명(16.6%) 순이었다. 친구수는 5-9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4명(49.7%)로 가장 많았으며 9명 이상이 51명(30.2%), 5명 이하가 34명(20.1%)이

었다.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1명(47.9%), ‘보통’ 47명(27.8%), ‘매우 만족한다’ 26명(15.4%), ‘만족하지 않는다’ 14명(8.3%), ‘불만족’ 1명(0.6%) 순이었으며 평균 3.69(±.852)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69)

Variables	Categories	Number(%)	Mean ± SD
Gender	Male	24(14.2)	
	Female	145(85.8)	
Grade	Junior	97(57.4)	
	Senior	72(42.6)	
Religion	Buddhism	10(5.9)	
	Christianity	45(26.6)	
	Catholic	19(11.2)	
	None	93(55.0)	
	Misc	2(1.2)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Good impression	54(32.0)	
	Employment	68(40.2)	
	Inducement	28(16.6)	
	According to grade	10(5.9)	
	Misc	9(5.3)	
Number of friends	< 5	34(20.1)	
	5-9	84(49.7)	
	> 9	51(30.2)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26(15.4)	3.69±.852
	Satisfied	81(47.9)	
	Average	47(27.8)	
	Dissatisfied	14(8.3)	
	Very dissatisfied	1(0.6)	

4.2 연구대상자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본 연구에서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애착불안은 평균 55.04점으로부터 최소 20점부터 최고 95점이었으며 애착회피는 평균 61.43점으로 최소 25점부터 최고 104점이었다. 애착불안의 문항평균은 3.06점이었으며 최소 1.11점부터 최고 5.28점이었고 애착회피의 문항평균은 3.42점으로 최소 1.4점부터 최고 5.8점이었다. 자아분화는 평균 132.90점 최소 85점부터 최대 166점이었으며 문항평균은 3.69점으로 최소 2.36점부터 최고 4.61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165.31점으로 문항평균 3.68점, 최소 116점과 최대 219점으로 분포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 ± SD	Item mean ± SD	Min	Max	Item Min	Item Max
Attachment anxiety	55.04±14.98	3.06±0.83	20	95	1.11	5.28
Attachment avoidance	61.43±13.89	3.42±0.77	25	104	1.40	5.80
Self-differentiation	132.90±15.77	3.69±0.44	85	166	2.36	4.61
clinical competency	165.31±19.59	3.68±0.44	116	219	2.58	4.87

4.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인애착 애착불안은 애착회피($r=50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애착불안은 자아분화($r=-.438, p<.001$) 및 친구수($r=-.34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임상수행능력($r=-.147, p=.056$)과 간호학과 만족도($r=-.118, p=.126$)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애착회피는 자아분화($r=-.240, p=.002$), 임상수행능력($r=-.237, p=.002$), 간호만족도($r=-.175, p=.023$), 친구수($r=-.294, p<.001$)과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분화는 임상수행능력($r=.248, p=.001$)과 친구수($r=.213,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간호학과 만족도($r=.138, p=.073$)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애착회피($r=-.237, p=.002$)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분화($r=.248, p=.001$)와 친구수($r=.166, p=.03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Self-differentiation	clinical competency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Attachment anxiety	1				
Attachment avoidance	.502 (p<.001)	1			
Self-differentiation	-.438 (p<.001)	-.240 (.002)	1		
clinical competency	-.147 (.056)	-.237 (.002)	.248 (.001)	1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118 (.126)	-.175 (.023)	-.138 (.073)	.073 (.345)	1
Number of friends	-.343 (p<.001)	-.294 (p<.001)	.213 (.005)	.166 (.031)	.101 (.189)

4.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중 간호학과 만족도와 친구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고 주요변수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자아분화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1.683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중 간호학과 만족도와 친구수는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자아분화($\beta = .203, p = .008$), 애착회피($\beta = -.188, p = .0015$)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4%($F = 8.707, p < .001$)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N=169)

Variables	B	SE	β	t(p)	Adj. R2	F(p)
(Constant)	148.040	15.585		9.499 (p<.001)		8.707 (p<.001)
Self-differentiation	.253	.094	.203	2.673 (.008)	.056	
Attachment avoidance	-.265	.107	-.188	-2.470 (.0015)	.084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정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인애착 하위영역인 애착회피 정도는 7점 만점에 3.42점으로 Oh, Park [22]의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의 애착회피 정도 4.80보다 낮았지만 Ju, Jun [3]의 애착회피점수 2.57점 보다는 높았다. 애착불안 역시 3.06점으로 Oh, Park [22]의 연구대상자들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Park, Choi [23]의

애착불안 정도보다 낮았으나 Ju, Jun [3]의 애착불안 점수 2.58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Kim, Lee [17]가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애착 총점과 비교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점수보다는 15점 이상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낮은 성인애착 정도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이나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 Lee [17]의 애착불안 점수보다는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애착불안점수가 애착회피 점수보다 낮아 침밀감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분화의 경우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Lee [17]의 연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Park, Kim [24] 및 Char, Je [25]의 연구와 비교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점수는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도구를 사용한 Lee, Choi [26]의 자아분화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24] 대인관계가 많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분화를 높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 관련연구는 아니지만 기존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 비교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3.68점으로 Jung [27]의 3.73보다는 낮았으나, Park, Lee, Gu [28]의 연구에서의 3.52점, Park, Kwon [29]의 3.49점보다 높아서 비교적 보통 이상의 임상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본간호수기술 적용, 시뮬레이션 등의 교과과정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자아분화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h, Lee [30]의 연구결과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성인애착의 하위영역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아분화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긍정적 성인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은 안정된 자아형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본연의 자주성을 가지고 타인과 정서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잘 유도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만이 임상수행 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상수행 능력과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는 어려웠다.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정도는 대학생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 Lee [17]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일관된 결과로 판단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임상수행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능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22] 및 성인초기 자아분화 수준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Lee, Hong [32]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와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정도가 가장 영향력은 높았으나 설명력은 8.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아분화가 잘 형성된 사람은 문제해결 중심적인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고 주어진 상황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아분화가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과 외부세계를 인식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33].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인다면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요 변인으로 규명이 된다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다음으로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애착회피였다. 애착회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안정애착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회자체를 막는 행동을 하게 된다[9].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진화되는 특성에서 이해해야 하므로[6] 간호대학생들에게 좋은 애착관계를 재경험하게 하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 단기상담 프로그램으로 생애초기부터 형성되어 왔던 내적 작동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어떠한 관계를 경험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9]. 이에 애착회피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변인들을 좀 더 파악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희망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활 동안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임상수행 능력은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와 자아분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 애착회피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간호대학생들의 애착회피정도를 낮추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간호대학생들의 친밀함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즉, 애착회피 정도를 낮추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하위영역별 특성은 파악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하위영역별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한 영역의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N. H. Ha,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1, No.1, pp.13-21, 2005.
- [2]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 205-213, 2006.
- [3] S. Ju, W-H. Jun, Interpersonal Attachment Styles and Love Styl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 pp. 648-655,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48>
- [4] Z. Zhang , W. Luk , D. Arthur , T. Wong,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3, No.4, pp.467-474, 2001.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01688.x>
- [5] S. Y. Jung, The Structural Model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3333-3352, 2013.
- [6] H. S. Shorey, C. R. Snyder,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s in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outcom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10, No.1, pp. 1-20, 2006.
DOI: <https://doi.org/10.1037/1089-2680.10.1.1>
- [7]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John Bowlby, Basic Books, 1969.
- [8] E-J. Oh, S-A,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 94-10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94>
- [9] M. A. Jang, N. M.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2, pp. 273-292, 2015.
- [10] E. J. Oh, S. Y. Lee, K. M. Sung, Interpersonal Relations, Hop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in Early Stag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9, No.4, pp.491-50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4.491>
- [11] E. J. Oh, K. M. Sung,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ccording to their Adult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7, No.2, pp.117-124.
- [12]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1978.
- [13] S-H. Woo, G-H. Song, G-P. Ch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o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Vol.30, No.4, pp.59-80, 2012.
- [14] S. A. Park, E. J. Oh,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ctive Stress Coping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6, pp.393-405.
- [15] E. Erdfelder, F. Faul, A. Buchner,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28, No.1, pp.1-11, 1996.
DOI: <https://doi.org/10.3758/BF03203630>
- [16] S-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4.
- [17] J-U. Kim, M-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2, pp.506-516,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506>
- [18]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1989.
- [19]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 364-371, 1998.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20] W. H. Lee, C. J. Kim, J. S. Yoo, K. S. Kim, S. M. 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for Yonsei University*, Vol.13, pp. 17-29, 1990.
- [21]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22] E. J. Oh, S. A. Park, Study 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tress Cop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Mobile Phone Addictio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7, No.2, pp. 159-184, 2016.
- [23] E. H. Park, E. Sil. Choi,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No.1, pp. 57-79, 2015.
- [24] N. R. M. Kim, B. J. Park, S. Y.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Anxiety: Moderated Mediating by Gend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4, pp. 111-125, 2016.
- [25] M. J. Cha, S. B. Je, A Study on Family Function, Self Differentiation, and Life Position of Unmarried Mothers and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9, pp. 175-198, 2010.
- [26] M. J. Lee, Y. S. Choi,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Self-Differentiation on Burnou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4, pp. 173-197, 2012.
- [27]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 53-61, 2012.
- [28] M. S. Park, M. H. Lee, J. A.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29, No.2, pp. 111-123, 2011.
- [29] Y. S. Park, Y.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 341-350,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30] Y. A. Ah, M.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Effect that Adult Attachment ha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4 No.1, pp. 89-106, 2016.
- [31] M-N. Lee, M-S. Ch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of Pre-Childhood Teacher and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19, No.3, pp. 207-223, 2014.
- [32] Y. R. Lee, J. S. Ho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early adulthood,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 No.2, pp. 151-165, 2016.
- [33] O. H. Bae, S. O. Hong, The Study of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Degree 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7, No.1, pp. 27-34, 2008.
-

정 수 경(Su Kyoung Ch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안전문화